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본 존 롤스

자유주의 연구회 토론
2018.06.07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경제학)

I. 롤스의 정의론 간단한 구조

□ 분배정의를 찾아서

"---, although a society is a cooperative venture for mutual advantage, it is typically marked by a conflict as well as an identity of interests. ... A set of principles is required for choosing among the various social arrangements which determine this division of advantages and for underwriting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the proper distributive shares."(TJ 4.)

"free and rational persons concerned to further their own interests would accept in an initial position of equality as defining the fundamental terms of their association. ... Once we decide to look for a conception of justice that nullifies **the accidents of natural endowment and the contingencies of social circumstance** as counters in quest for political and economic advantage, we are led to these principles." (TJ 10)

I. 롤스의 정의론 간단한 구조

- ▶ 사회란 ? Enterprise 공동으로 생산하는 기업
- ▶ 사회문제 또는 경제문제: 분배문제
- ▶ 자연적 재주와 능력의 분배, 나이, 성, 종족, 색깔, 그리고 가정과 부모의 재산, 종교, 출신지역 성격 그리고 경기변동 등과 같은 요인들은 모두 운(Luck). 운에 의한 소득 재산분배는 도덕적으로 볼 때 자의적. 복권당첨.
- ▶ 운에 의해서 분배되는 경제질서는 반대.
- **사회계약 상황**
 - ▶ 무지의 베일: 계약참여자들은 나의 출신 내 부모 친구 국적 출신 지역 등을 모름.
 - ▶ 사회과학 인간심리학을 잘 알고 있음.
 - ▶ 무지의 베일의 상태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이 공정

I. 롤스의 정의론 간단한 구조

□ 선택된 정의의 원칙

- ▶ 자유의 원칙(자유 언론 사상과 같은 시민적 자유, 정치적 참여와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 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 ▶ 공정한 기회의 평등
- ▶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 롤스에게 정의로운 분배는 평등분배. 그러나 서민층(최소수혜자)을 위한 것이라면 불평등을 허용.
무죄추정원칙: 범죄혐의자는 일단 무죄라고 보고 범죄를 입증해야 함.
- ▶ 평등추정원칙: 분배는 평등분배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에 이탈할 경우 모든 불평등에 대해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차등원칙: 인센티브 문제=비 기업가적 인센티브/기업가적 인센티브.

II. 인간과 사회의 관계

□ 경제문제

- ▶ 경제 또는 사회문제: 주어진 공동으로 생산한 결과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우냐의 문제. 분배문제가 사회적 문제.
- ▶ 경제문제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로 여기는 주류경제학과 상이함. 공통점 이기적 인간
- ▶ 오스트리아학파: 이기적 이타적이냐의 문제는 부차적
 하이에크: 지식의 문제
 -개인적 차원 인간이성의 구조적 한계
 -사회적 차원: 분산된 지식의 사회적 이용의 문제

II. 인간과 사회의 관계

□ 이성과 사회의 관계

- ▶ 롤스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의심. 사회질서를 백지 상태에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사회계약 을 통해서 사회를 재구성
- 인간이성(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이전에 존재, 이성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계획하는 이성)는 전제. 데카르트 홉스 전통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
- 무지의 베일에서 전제한 인간: 원자적 인간, 연고가 없는 인간. 가짜 개인주의 ==> 사회적 인간 연고적 인간

II. 인간과 사회의 관계

▶하이에크: 진화론적 합리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 인간이성은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습득 .
- 시장문화는 배워 습득한 것이지 이성을 통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님.
- 문명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자생적 산물.
- 문명이 창출한 것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성은 자신을 창출한 문명을 극복할 수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원점을 확인할 수도 없음.
- 시장 지식은 시장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습득

II. 인간과 사회의 관계

□진짜 개인주의

- ▶인간들의 개체성은 각자 고유한 재주와 용모 선호 취향 등. 그들에게는 가정, 마을, 학교, 교회 또는 친구와 친족 등. 삶의 고유한 상황.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하기가 매우 어려움
-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관련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부터 출발. 롤스처럼 원자적 인간, 완전한 지식을 가진 인간 등 "도덕적 인간"과 같은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은 지적인 자만과 그리고 도덕적 위선을 야기.
- ▶홉스 롤스 등의 합리주의 사상 또는 자연권 사상보다 진화사상이 타당.

II. 인간과 사회의 관계

□ 조직과 자생적 질서

- ▶ 사회가 거대한 기업인가?
 - 구성원들이 달성할 공동목표의 존재
 - 지시명령에 따른 위계적 질서
 -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

- ▶ 사회는 자생적 질서
 - 공동목표의 부존
 - 법이 지배하는 사회
 - 본능과 이성의 중간: 문화적 진화의 선물

III. 시장에 대한 관점

□ 신고전파의 후생경제학

- ▶ 완전경쟁모델, 시장을 균형으로 파악

“Under certain conditions competitive prices select the goods to be produced and allocate resources to their production in such a manner that there is no way to improve upon either the choice of productive methods by firms, or the distribution of goods that arises from the purchases of households. There exists no rearrangement of the resulting economic configuration that makes one household better off (in view of its preferences) without making another worse off. No further mutually advantageous trades are possible; nor are there any feasible productive processes that will yield more of some desired commodity without requiring a cutback in another”(TJ.240)

III. 시장에 대한 관점

▶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일관성

"---theoretically at least a socialist regime can avail itself of the advantages of [market economy]. One of these advantages is efficiency"

"consistency of market arrangement with socialist institutions" (TJ 240)

-일관성 전제를 롤스는 제임스 미드(영국사회주의자)에게서 배움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일관성(=O. Lange A. Lerner의 전제). P. Samuelson, K. E. Arrow. L. Thurow. Heilbronner 똑 같이 생각

▶ 이윤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

□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제스와 하이에크: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불가능정리= 계산문제(미제스)와 지식의 문제(하이에크) (calculation-/knowledge-problem)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의 금지된 사회주의에는 가격이 존재할 수 없음

III. 시장에 대한 관점

▶ 오스트리아 학파: 균형이 아니라 시장과정.

-균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로빈스적 인간 (Robbinsian man): 가격과 선택대안 들이 주어져 있음:

- 커츠너리안 인간 < 슈페터리안 인간 < 뢰프키안 인간 =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활동이 자본주의 시장과정의 본질이라는 것이 없음.

▶ 롤스: 적극적인 기업가적 경쟁이 없는 세계

-발견과정(새로운 상품, 새로운 가격, 새로운 생산방법의 발견)의 없음.

-시장의 진화적 과정을 무시: 발견-선별(도태 테스트과정) 성공적인 것의 확산 과정(하이에크) 진화의 원동력 시장의 다변화 다양화 복잡계의 특성

III. 시장에 대한 관점

▶기업가의 위계성 (출처: 민경국, 1997, 283)

↳ ┌ └	로빈스적 인간	◦최적화-배분적, 일상적 행위 ◦균형	균형
↳ ┌ └	미제스적 인간	◦차익 거래적 행위. 일상화되지 않은 거래 가능성 ◦균형 형성과정	이론
↳ ┌ └	슈페터적 인간	◦혁신적, 새로운 행동 가능성의 인지 ◦불균형	진화
	뢰프케적 인간	◦혁신 능력의 향상 ◦불균형	이론

민경국교수

13

IV. 분배정의 vs. 정의로운 행동규칙

□ 자유주의의 정의

- ▶ 정의는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 없는 상태
- ▶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은 정의

롤스의 분배정의

- ▶ 정의는 협력의 결과로서 생산된 재화의 분배와 관련.
- ▶ 최소수혜자의 삶의 개선: 비기업가적 인센티브를 전제

□ 분배정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

- ▶ 자연권과 자연법적 기반에서 분배정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님.
- ▶ 분배정의는 개념적 오류.: 책임 있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해서만 정의 또는 불의를 말할 수 있음
-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는 분배를 주관하는 어떤 실체가 없음
- 의인화의 오류.
- ▶ 분배정의는 원시사회의 사고방식
- ▶ 정의는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 없는 상태

민경국교수

14

IV. 분배정의와 정의로운 행동규칙

□ 자유주의의 정의의 문제

▶ 분배정의에서 도덕적 공백

- 시장의 분배에만 치중
- 시장이전(pre-market)의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부족
- 내 능력이 왜 내 것인가? 박찬호의 야구능력이 왜 그 사람의 것인가.
- 윌트 챔벌린/박찬우/김연아가 번 돈이 어떻게 정당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는가?

▶ 스미스 하이에크 미제스: 공격적 논리가 없음.

- 소극적 논리로 일관

▶ 공백을 치고 들어온 것이 롤스의 정의론

□ 운(Luck)의 문제

▶ 능력, 재주, 부모 잘 만난 것 노력하는 태도는 운에 의해서 생겨난 것

"타고난 재주의 분배를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 행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출생의 로또에서 제비뽑기에 의해 사람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경제조직의 방법은 반대되어야 한다."Roemer

IV. 분배정의와 정의로운 행동규칙

□ 우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 시장경제는 행운을 만난 사람에게 부당한 월계관을 수여하는가? (예: 흠수저 금수저)

▶ 선천적 능력이 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유재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없음

▶ 선천적 능력 재주 등 인격적 특성이 행운의 여신이 심지 뽑아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자. 공짜점심!!! 그런가?

- 개인적 특성이 개인의 인격 속에 가지런히 포장되어 이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

- 재능과 능력의 유용성도 그 사람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전제.

▶ 이런 논리에는 기업가 정신이 없음: 기업가 정신의 역할

- 내가 어떤 능력을 타고 났는가를 발견
-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것, 시장성 있게 만드는 것.

▶ 발견자(창조자)-소유자 원칙(finders. creators-keepers Rule)

IV. 분배정의와 정의로운 행동규칙

□ 발견자(창조자)-소유자 윤리의 전제조건

▶ self-ownership?

- 하이에크, 미제스, 칸트 반대; 커츠너 수용
- 행동의 자유

▶ 발견과 창조: 운을 기회로 만드는 것

▶ 커츠너는 "공짜 점심은 없다" 는 말은 틀렸다고 주장

□ 자유가 분배의 대상인가?

▶ 롤스는 자유를 복수로 사용(liberties)

-자유는 분할가능한가?

- 자유를 분배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자유를 면허 허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

- 왜 경제자유를 뺐나? 그대신 민주주의를 강조

감사합니다